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음 9월 11일) 제21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라도, 새천년 향해 응비하라’

전라도 천년기념식이 18일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메인무대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및 관계자들이 개회식 선연과 동시에 박수를 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바로 신고하세요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
 도교육청 “도내 모든 학교 대상 폭넓게 운영할 것”

교육당국이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열고 민원이 제기된 유치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0월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한 접수를 받고 이들 유치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 외에도 대형유치원이나 고액유치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사립유치원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비리신고센터를 폭넓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라도 천년 상생 다짐

전북·광주·전남, 전라감영 일대서 기념식

천년사 편찬·전라감영 복원
 새천년 공원 등 사업 협력
 타임캡슐 봉안 등 행사도 진행

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 3개 시·도는 ‘전라도 천년 기념식’을 전주 전라감영 일대에서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전북도 주관으로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시 전라감영 터(구 전북도청 터)에서 전라도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1018년부터 새천년이 된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의 자치단체장들은 과거 천 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천 년도 상생·협력하기로 다짐하고 전 년사 편찬과 전라감영 복원, 새천년 공원 등의 사업을 함께하며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전라도 주민들의 소망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담아 봉안하는 행사와 새로운 천 년의 문을 두드리는 모던 팝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진행됐다.

앞서, 이번 기념행사의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7일 호남제일성이

라 불리는 전주 풍남문 앞에서 타종식, 전개의 빛 퍼포먼스 등 전야제와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이번 기념식이 개최된 전라감영은 전남, 광주, 전북, 제주까지 아우르는 전라도 최고의 지방통치 행정기구였으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반봉건, 반외세 민족운동인 동학농민혁명 당시 집강소 설치를 위해 전주화약을 체결한 역사적 장소다.

/송효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매일 INDEX

3면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미사 연설

전국체전 7일 대장정 ‘끝’

익산서 폐회식...내년 서울 개최

제99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8일 저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관려기사 16면〉

이날 폐회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차기 개최지인 서울시의 진성준 정무부시장 등을 비롯, 수많은 시민들도 참석, 30만 익산시민 모두가 함께 했던 2018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공식행사에서는 전주 KBS 합윤호, 김태은 아나운서 사회로 개식을 통고하고 17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 동포 선수단 입장 후 성적발표, 종합 시상, 35사단 의장대의 대회기 강하가

진행되었으며, 차기 개최지로 대회를 전달하는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송하진 도지사가 함께 대회기를 대한체육회장에게 전달하고 대한체육회장은 차기 개최지인 서울시에 전달해 내년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이후 차기 개최지 서울시의 문화공연,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폐회선언으로 7일간 익산종합운동장을 환히 밝히던 성화가 꺼지면서 제99회 전국체전의 모든 공식행사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폐회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4년간 제99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은 30만 익산시민을 대표하여 정현을 익산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 김도종 총장, 모친
 조의금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

원광대학교는 18일 김도종 총장(사진)과 형제, 가족이 지난달 열반한 모친인 박중원 원불교 정사의 조의금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가족들은 모친 49재를 마친 뒤 평소 모친의 뜻에 따라 후학 양성을 위해 5천만 원을 내렸다.

대학은 기탁금을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박중원 장학금’으로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어머님의 오랜 뜻을 따랐다”며 박중원 장학금이 유학생 유치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익산=우병희 기자



제2회 남원 흥부제 품바 명인전

10월 20일(토) 오후 2시
 남원 사랑의 광장
 (남원시 어연동 37-12)

주최: 남원시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 063-288-9700